



남원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에서는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9일부터 19일까지 '119 시민 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한다. 시민수상구조대는 레저활동 확산과 폭염 등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구성으로, 수난사고 및 인명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어왔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지원방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격증 등 서류를 지참해 소방서를 방문하면 되고, 선발된 대원은 응급처치 및 수중 인명구조교육을 받은 후 7월 11일~8월 16일 까지 뱃사람 일원에서 활동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063-630-826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완주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완주군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밝혔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도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807~8)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찾아가는 농촌행정' 서비스 실천

김제시 성덕면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판로 악화 등으로 소득감소와 영농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필요한 지원사업을 해내는 행정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사업지원에년부터 이루어진 영농현장 방문을 통하여 시설재배 농가가 안고 있는 현안을 파악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한 번의 작업으로 최소 3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재배 농가의 장기성 필름 지원은 기쁨 끝의 단비와도 같았다. 노후화된 파복재가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광합성작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시설재배 농가의 필름 상태는 그만큼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판매이익이 감소되어가는 악화일로 상황에서 맞이한 사업지원은 발로 뛰는 농촌 행정이 이뤄낸 성과다. /김제=곽태 기자

남원경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개최

남원경찰서는 10일 경찰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란 지역 문제에 대한 기능 간 연결·조정·공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수법 등으로 실행되고 있는 보이 스피스 피해 신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각 부서 협업 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것”

건보 남원지사, 용남시장에서 청렴문화 정착위한 거리 캠페인 실시



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이희규)와 참여환경운동연대/남원의제21(대표 윤태중)은 지난 9일 용남시장에서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공단이 정부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한 것을 기념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2020년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 등의 청렴홍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

달하고, 윤리·인권경영 및 청렴실천 생활화를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이 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2014년부터 반부패 청렴실천 협의체를 구성해 청렴시책 평가와 정보교류, 협력사업 발굴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희규 지사장과 윤태중 대표는 “확고한 청렴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천면, 학동·무거 마을 배달도시락으로 농촌에 활력 제공

진안군 정천면(면장 이명진)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배달 도시락을 제공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회관 등에서 공동취사가 불가하여 공동급식 시행이 계속 미뤄졌으나, 바쁜 영농철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학동, 무거 마을 주민들에게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식사 준비로 인한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영농작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로 연간 40일까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한다. 이명진 면장은 “점차 마을별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마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영농철 농업인의 가사부담 해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익산소방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방문·격려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전북서부보훈지청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2곳에 '힐링-멘토링'을 실시했다. 보훈지청에서 주관하는 힐링-멘토링은 2013년부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사회 분위기를 확산을 위하여 각 기관장이 보훈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위로 격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소방서 또한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2013년부터 보훈가족 2곳을 선정, 멘티멘토를 체결하여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로금 전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등 이웃나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9일에는 익산소방서, 보훈지청 직원들이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위로금 전달과 주변 환경 정리, 화재 취약요인 점검, 어르신 건강체크, 밀착 등 봉사활동도 펼쳐 훈훈함을 더했다. 참전유공자 김양동씨는 “잊지 않고 찾아와 항상 큰 위로를 받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 덕분이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실전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10일 금제119안전센터에서 수난사고 대비 실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올여름 예상되는 폭염으로 계속 및 강으로 피서객이 증가하며 수난사고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실시된 것으로, 훈련은 금제면의 요천 일대에서 구명환을 이용한 구조법 및 실제 수난사고 시나리오에 따라 익수자를 구조하고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까지 이어지는 훈련을 실시했다. 김대근 안전센터장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여기소방유물 있어요' 이벤트 실시

우리나라 소방역사를 재조명하고 근대 개항(1876년)이후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과 자료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창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사라져가는 소방유물과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소방유물찾기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이벤트를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누리집(https://firemuseum.or.kr)에 등록, 네이버[소방청 블로그] 검색 → 소방산업유물자료관 → 소장유물 등록을 클릭하여 사진 및 간단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이벤트 종료 후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냐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으니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방유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도동지구대, 순찰차 탑재장비 등 점검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도동지구대(대장 이봉권)는 10일, 112신고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안전확보와 사건처리 시 증거품 보존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차 탑재 장비 등을 점검했다. 특히 폴리스라인, 구급약품, 휴대용 소화기 등 기본장비는 물론, 하절기 탑재장비인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포프 등을 탑재하고, 2차 교통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꽃탐지기와 안전경고등을 점검하고 탑재했다. 이봉권 대장은 “여름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탑재장비를 점검해 어떤 사고에도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